



RaonAtti

9th Siem Reap team

3월



CONTENTS

시 엠 립 팀

3 월 의 활 동

4 월 의 계 획

고 민 거 리

개 인 소 감



시엠립 팀

Siem Reap Team

1. 캄보디아팀 소개 – 우리 팀원



김재민
(DARA)

백인준
(SSUNG HA)

장은지
(TEARY)

목진경
(REAK SMI)

1. 시엠립팀 소개 – 우리 지역



동남아시아 대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에서도 앙코르 왓트의 유적지로 유명한 시엠립,
시엠립에서도 빈민촌이 존재하는 프농그라움 마을,
그곳이 바로 우리가 활동하는 마을이다.

1. 시엠립팀 소개 - 우리 기관



7개 팀 중 시엠립 팀만 유일하게 호스트기관이 YMCA가 아닌 다일공동체로 파견 된다

다일공동체는
'다양성 안의 일치' 라는 모토 아래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선교활동 및
여러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특히,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는
밥퍼, 빵퍼 활동과 같은 무료급식과
무료진료, 아동결연, 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1. 시엠리프팀 소개 - 다일 속에서의 라온아띠

다일로 파견된 3월의 라온아띠 9기는 앞서 언급한 다일의 사업 중
밥퍼활동과 빵퍼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종교적 색채, 그리고 여러 생활적 측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라온아띠 9기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라온아띠의 정체성 vs 공동체 속에서의 적응

어떤 가치가 우선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어려운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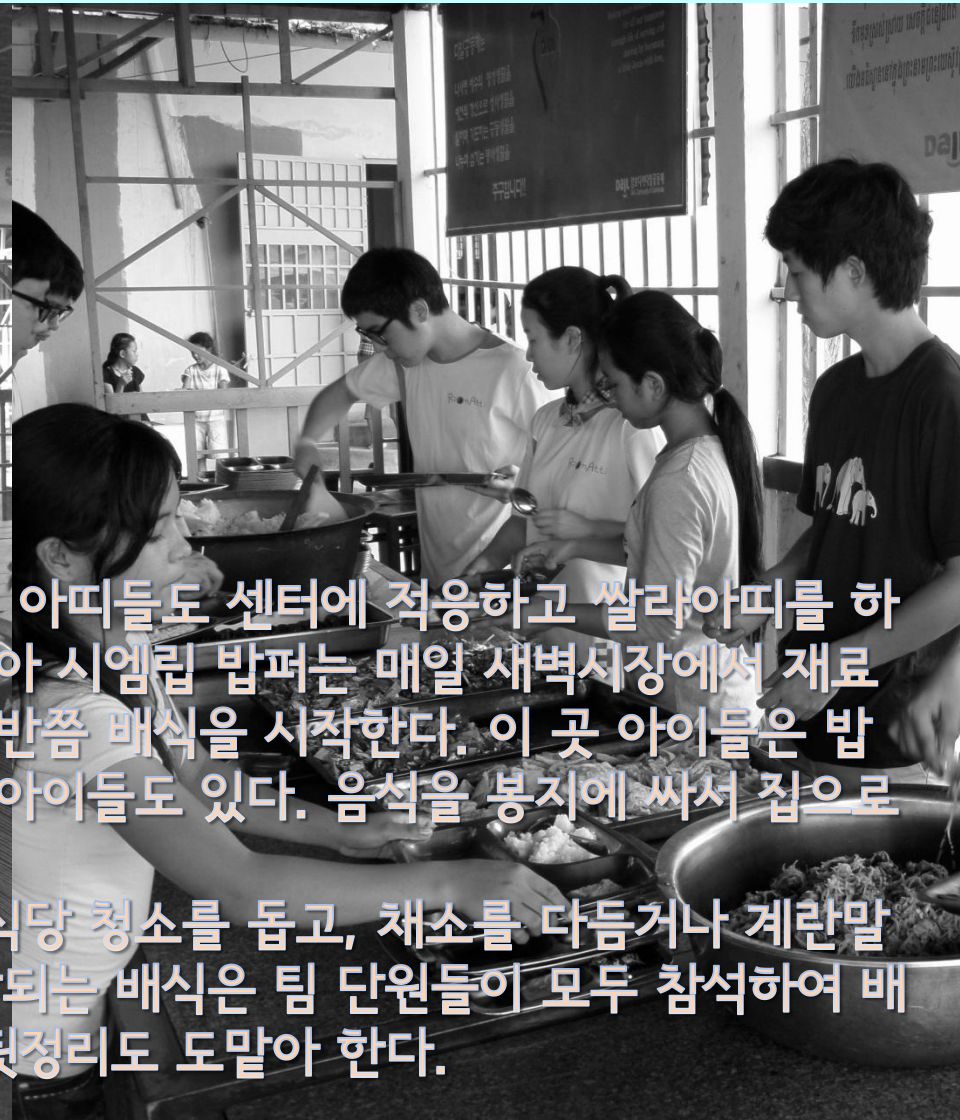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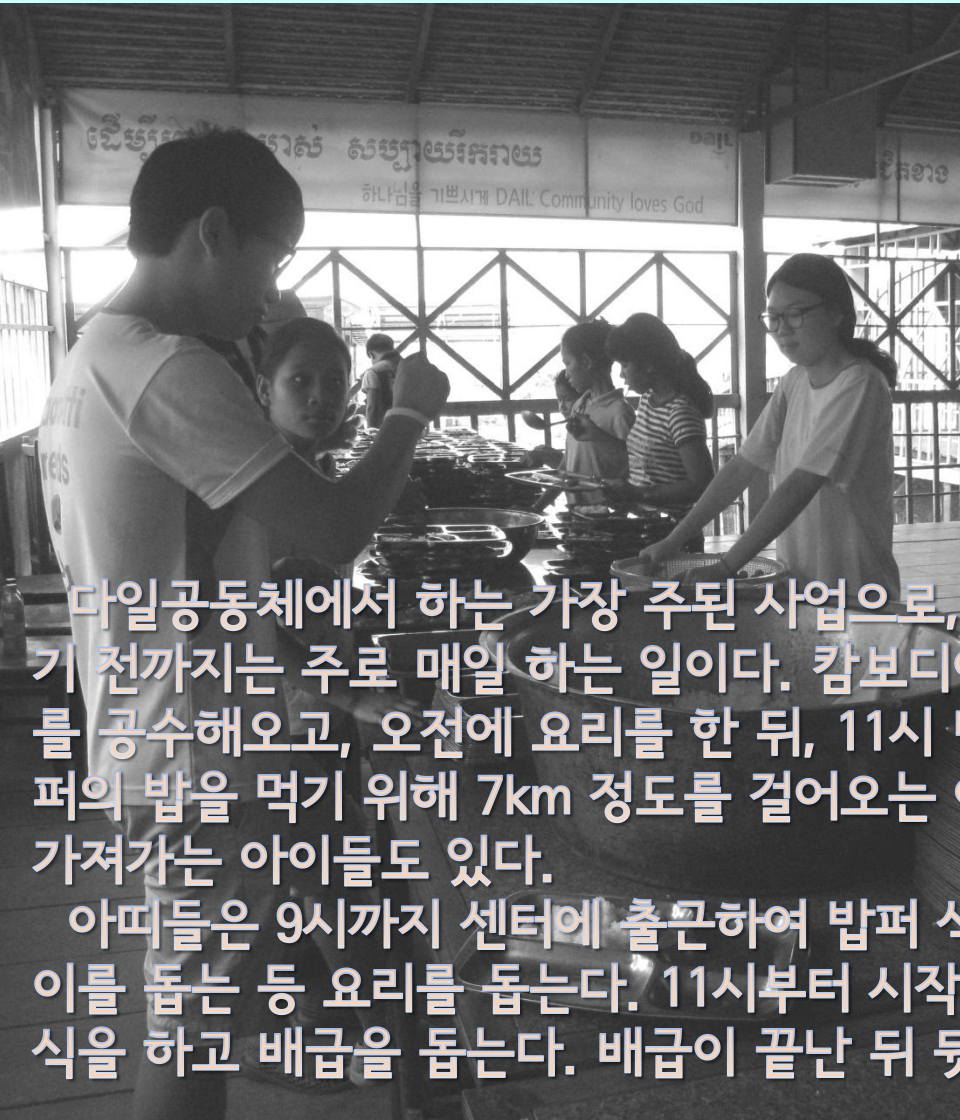
이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일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라온아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

3월의 활동

Activity of March

2. 3월의 활동 - 밥퍼



다일공동체에서 하는 가장 주된 사업으로, 아띠들도 센터에 적응하고 쌀라아띠를 하기 전까지는 주로 매일 하는 일이다. 캄보디아 시엠립 밥퍼는 매일 새벽시장에서 재료를 공수해오고, 오전에 요리를 한 뒤, 11시 반쯤 배식을 시작한다. 이곳 아이들은 밥퍼의 밥을 먹기 위해 7km 정도를 걸어오는 아이들도 있다. 음식을 봉지에 싸서 집으로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다.

아띠들은 9시까지 센터에 출근하여 밥퍼 식당 청소를 돕고, 채소를 다듬거나 계란말이를 돕는 등 요리를 돕는다. 11시부터 시작되는 배식은 팀 단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배식을 하고 배급을 돕는다. 배급이 끝난 뒤 뒷정리도 도맡아 한다.

2. 3월의 활동 - 빵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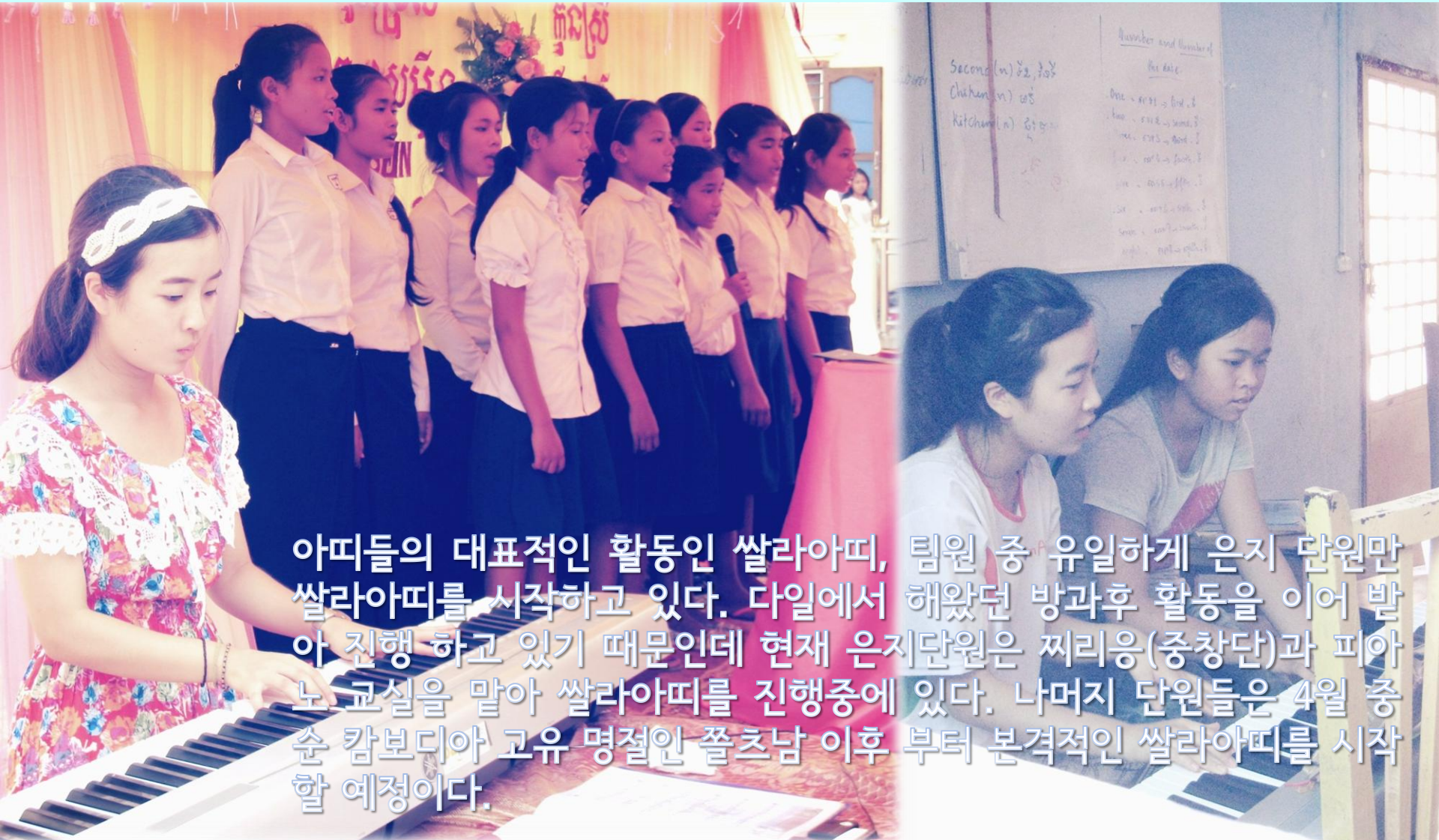


빵퍼는 센터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의 아이들을 위해 밥 대신 빵을 나누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밥퍼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시작하여 오후 2시쯤 빵 배달을 한다. 매일 1200-1500개 정도를 만들어 주변에 전달한다.

아피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빵퍼에 가서 빵 만드는 법을 배우며, 같이 빵을 만들고, 포장도 한다. 주로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빵퍼 청소, 환영문구 제작 등)



2. 3월의 활동 - 쌀라아띠



아띠들의 대표적인 활동인 쌀라아띠, 팀원 중 유일하게 은지 단원만 쌀라아띠를 시작하고 있다. 다일에서 해왔던 방과후 활동을 이어 받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은지단원은 찌리응(중창단)과 피아노 교실을 맡아 쌀라아띠를 진행중에 있다. 나머지 단원들은 4월 중순 캄보디아 고유 명절인 쯔츠남 이후 부터 본격적인 쌀라아띠를 시작 할 예정이다.

* 쌀라아띠는 아띠들의 학교라는 뜻이다.

2. 3월의 활동 - 스텝 한국어



현지 스텝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클래스. 단지 한국어를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크메르어도 배우고, 친밀감도 쌓으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스텝 한국어는 단원마다 한 클래스씩 맡아 총 4개의 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꾸준히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2. 3월의 활동 - 한글학교



한글 학교는 시엠립에 사는 한국 교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써, 5세부터 13세까지 다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업 과정으로 구성된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실시되며 아띠들은 국어와 사회를 한 반씩 맡아 가르치고 있다. 추가적으로 8기때부터 해왔던 사물놀이반을 은지 단원이 이어서 가르치고 있다.

2. 3월의 활동 - 크메르어 수업

일주일에 세번 월,수,금 현지 스텝에게 크메르어를 배우는 클래스이다. 아띠 뿐만이 아니라 크메르어를 배우고 싶고, 배워야 하는 한국 스텝들과 같이 듣는다. 현지 스텝이 크메르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 또한 같이 언어 공부를 하면서 친밀감도 쌓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마찬 가지로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나, 스텝들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많다.

2. 3월의 활동 - 마을 탐방



쓰레기 축제와 관련 하여 우리들은 마을 탐방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오전 중에 시간을 내서 프놈끄라움 마을을 살며시 들여다 보았다.

살짝 들여다 본 마을은 쓰레기 통이 없었고,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었다. 집집마다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했던 쓰레기통은 없었다.

이 쓰레기들은 한 민간업체에서 돈을 받고 수거해 간다고 한다. 우리가 본 내용을 토대로 쓰레기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고, 계획 중이다.



2. 3월의 활동 - 마을 탐방2



른슬레이멈(주방장)

가족과 밥퍼를 도와주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에 있는 프놈끄라움 산으로 나들이를 갔다. 처음으로 아띠와 현 지친구들이 나들이를 가는 것이여서 설레고 기대됐다. 그들과 함께 추억거리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4월의 계획

Plan of April

3. 4월의 계획 - 쌀라아띠



김재민 - 미술반

내가 생각하는 쌀라아띠의 궁극적 목적은 아이들과 나 모두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함이다. 아이들과 하게 될 일련의 미술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전하고 나 또한 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껌루수업은 주로 함께하는 공동미술작업으로 노는활동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목진경- 영어반

영어반은 예전부터 있던 방과후 활동으로, 이번에는 내가 쌀라아띠로서 하게 되었다. 기존부터 있던 반이니 만큼 수준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다. 아직 모집 벽지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하고 싶어한다고 말할만큼 아이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기초반과 기존반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할 예정이다.



백인준 - 컴퓨터반

컴퓨터반 역시 예전부터 있던 방과 후 활동으로, 기존에 있던 kcoc단원들의 한국 귀국으로 인해 인수인계를 받았고, 새로 반을 모집한 후 엑셀과 포토샵 강의를 할 계획이다. 쫄츠남 이후에 첫 수업을 하게 된다.

장은지 - 짜리응(중창단) / 피아노 교실

이전에 존재해왔던 반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새로운 반을 개설하여 짜리응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새로 모집할 계획이다. 피아노 교실은 이전에 해왔던 아이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3. 4월의 계획 - 쯔츠남 휴가



캄보디아의 가장 큰 명절인 쯔츠남을 맞이하여 캄보디아 전체가 일주일 가량 쉰다.
나라 전체가 쉬다 보니 센터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맞이하게 된다.

아띠 4명과 KCOC단원 3명, 개인 봉사자 1명과 함께 시아누크빌과 꼬공을
여행하게 되었다. 4월 14일 밤에 출발해서 4월 19일날 돌아오는 일정이다.

3. 4월의 계획 - 쓰레기 축제/환경 송

센터 주변에, 그리고 프놈프라움 마을 곳곳에 지저분하게 널부러져 있는 쓰레기.

이것이 불편해서 쓰레기를 주제로 진행된 회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도록 교육하자는 의견! 그런데, 너희 쓰레기통. 마을에서 본 적있어?

긴가민가하는 우리들. 그래서 쓰레기를 테마로 마을탐방을 실시해보게되었다.

다음날 실시한 마을탐방 후 정작 우리 마을엔 쓰레기통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엠립팀!

마을의 쓰레기통이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담자고 말하려는 우리의 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

까에 대한 의문. 하지만 쓰레기통의 존재여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자신의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는, 책임의식 그리고 그 쓰레기들로 인해 많은 영향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결론.

쓰레기 축제는 쫄츠남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환경교육을

결합시켜 진행될 예정이며 이전 기수에서 진행하였던 환경송역시 쫄츠남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고민거리

The source of trouble

명민한
두뇌

4. 고민거리 - 자발적 불편

우리들과 관계맺고 아이들과 스텝들이 사는 센터주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빈민마을.

반면 시엠립 시내에 위치한
다일의 숙소, 너무나도 좋은 시설, 환경.

무더운 열대국가 캄보디아.
그 가운데 놓여진 에어컨.
사용해도... 될 까?

캄보디아 현지에 와서 처음으로 한 고민!
자발적 불편!!!!

고민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 에어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는 않되,
개인의 건강상황이나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재량껏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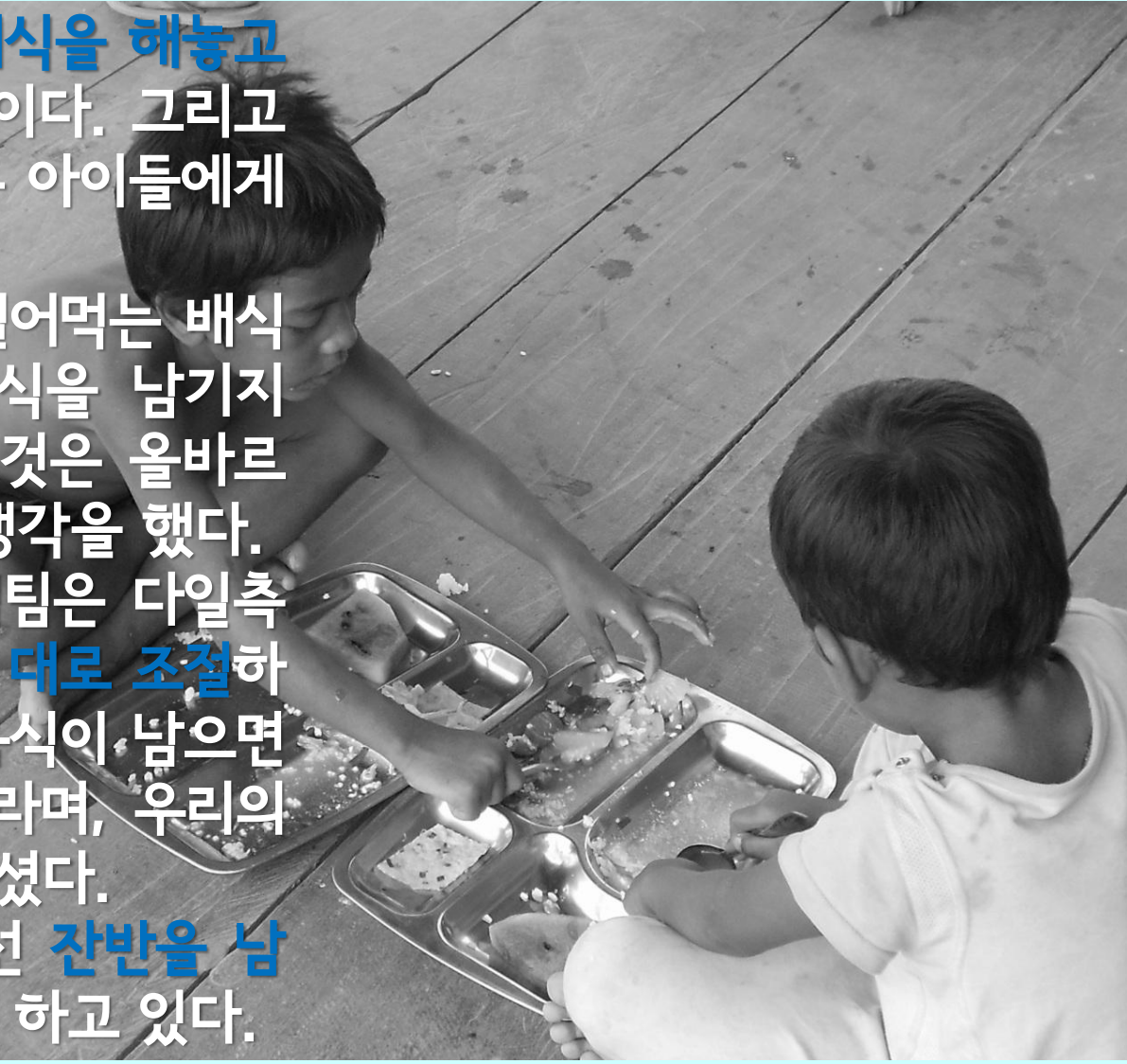
4. 고민거리 – 밥퍼 잔반과 배식 시스템

밥퍼 배식은 식판에 **미리 배식을 해놓고 밥을 나누어주는 배식시스템**이다. 그리고 우리는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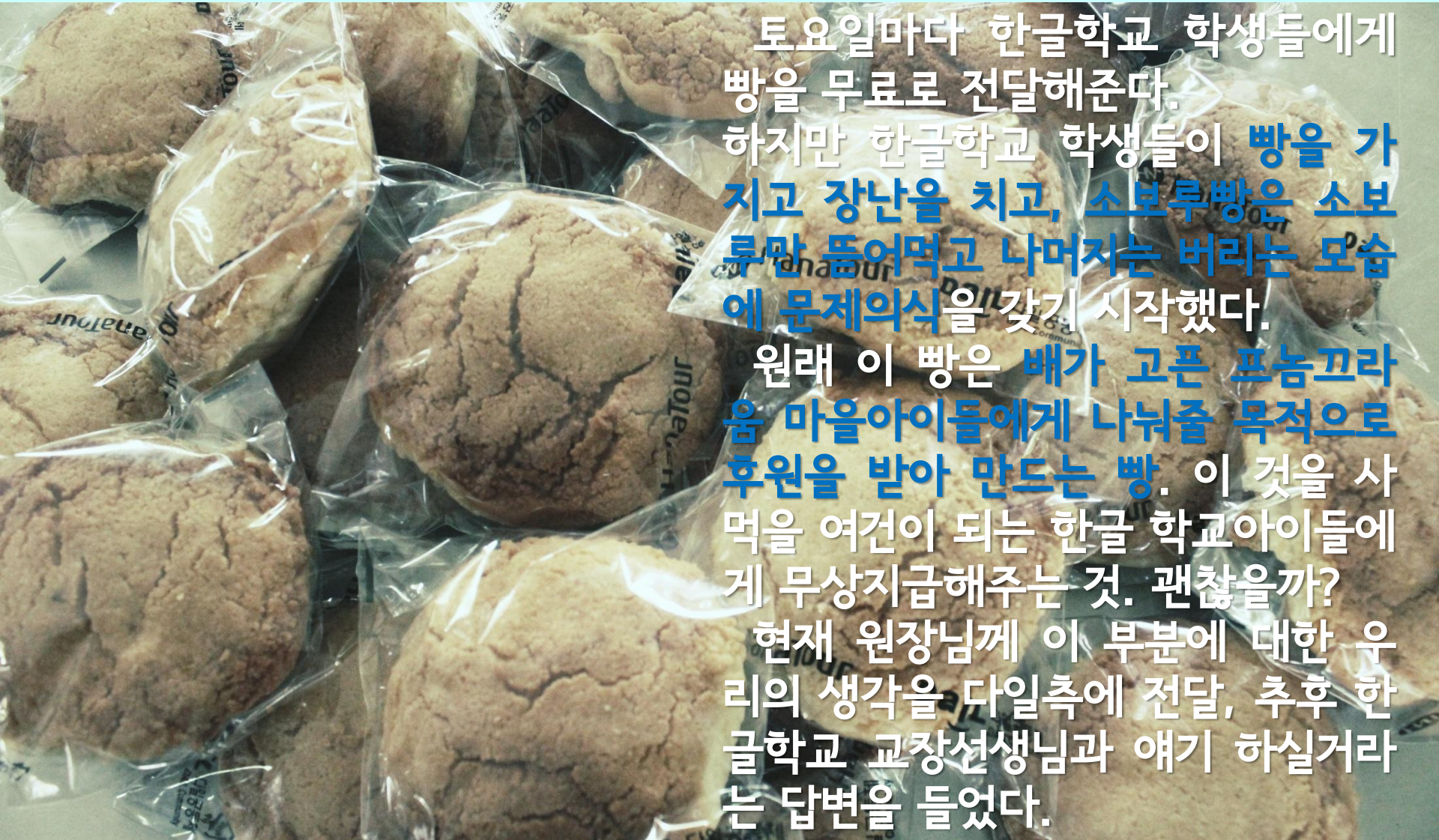
하지만, 자신이 먹을 만큼 덜어먹는 배식 구조가 아닌 이상 주어진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요구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대해 라온아미 시엠립팀은 다일측에 배식 전 밥의 양을 **소, 중, 대로 조절**하는 게 어떨지 건의. 하지만 음식이 남으면 알아서 비닐봉투에 싸갈것이라며, 우리의 요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셨다.

아쉽지만 현재다일 밥퍼에선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하고 있다.



4. 고민거리 - 한글학교 빵 무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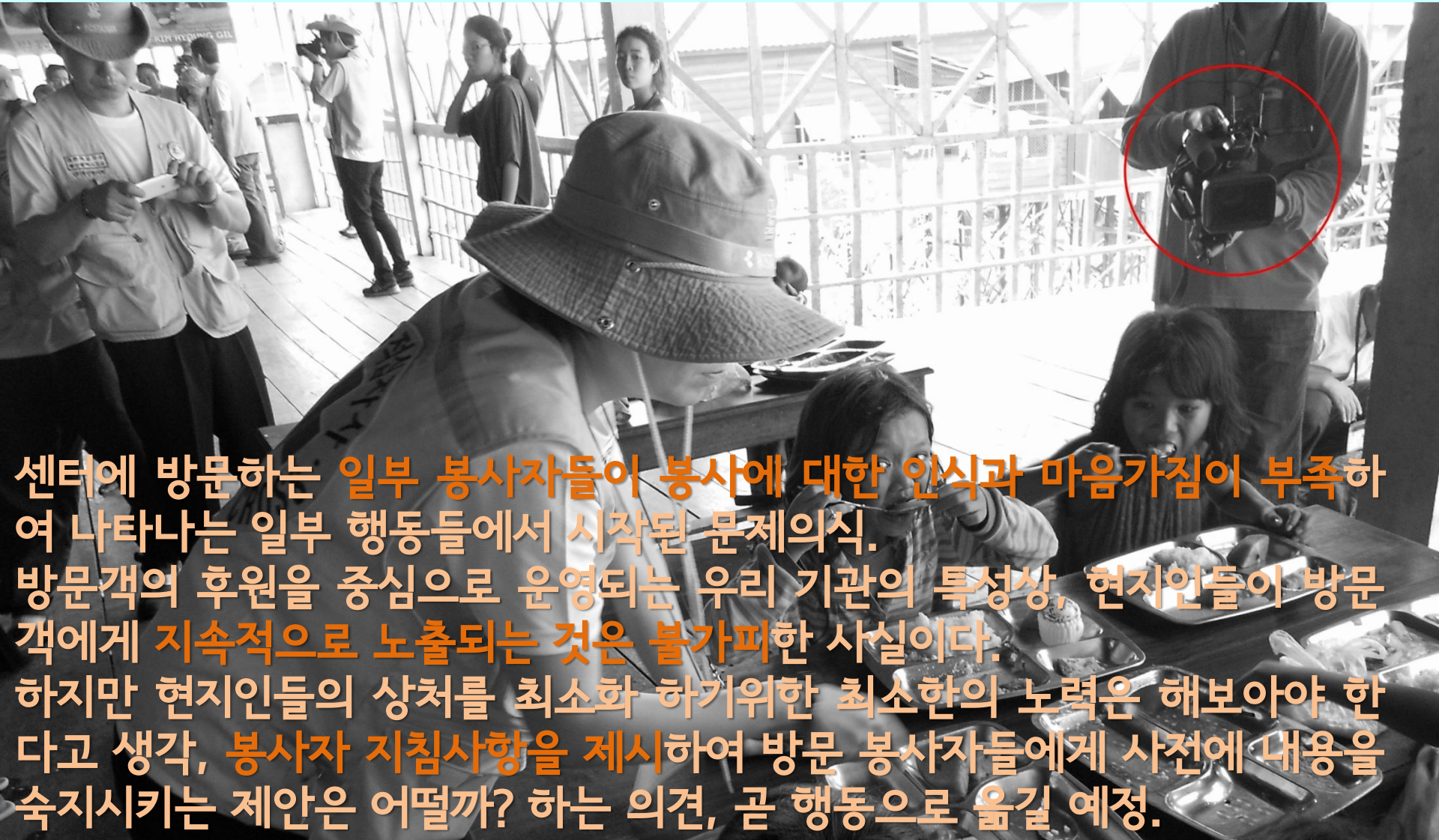
토요일마다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빵을 무료로 전달해준다.

하지만 한글학교 학생들이 빵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소보루빵은 소보루만 뜯어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원래 이 빵은 배가 고픈 프놈프라움 마을아이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후원을 받아 만드는 빵. 이것을 사먹을 여건이 되는 한글 학교아이들에게 무상지급해주는 것. 괜찮을까?

현재 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일층에 전달, 추후 한글학교 교장선생님과 얘기 하실거라는 답변을 들었다.

4. 고민거리 - 봉사자 지침사항



4. 고민거리 - 아띠방



Before

아띠방 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열어둘지 고민했다. 놀러 오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열린 마음을 보여준다는 상징적 의미로 열어두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처음으로 생긴 우리 팀만의 공간이라는 생각과 도난은 항상 주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창문에 한글로 홍보되어있던 문구대신 이곳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메르어로 바꾸고 우리사진도 부착했다.



After



After

* 문구의 뜻 : 라온아띠 = 좋은친구들
안녕, 언제든 놀러와!

4. 고민거리 – 좀 더 근본적인 고민

무엇이 프놈프라움 마을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일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10년 후, 20년 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래토록 두고 봤을때 프놈프라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배를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삼모작도 가능한 농업국가 캄보디아 사람들은 왜 굶고 있는 걸까?
질문에 질문은 꼬리를 물었고
그 어떤 질문에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는 없는 일이라하더라도
멀리 내다보았을 때 도움이 된다면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일은 그냥 돌다리만 놓는 일?

개인 소감

Impression

명민한
두뇌

5. 개인 소감 - 김재민

프농그라운 마을에서의 어느 하루.

여느때와 같은 한가로운 오전이었다. 나는 이곳저곳 센터 주변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피를 흘리며 수건으로 손을 감싸며 클리닉으로 오고 있는 레악을 발견했다. 수건에 흥건히 묻은 피를 보고 나는 너무 놀랐고, 서둘러 레악과 함께 클리닉에 들어갔다.

다일에서 하고 있는 밥퍼 활동은 현지 밥퍼스텝들로만 운영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캄보디아 다일에는 밥퍼활동을 보조적으로 도와 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레악은 그 아이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막내였다. 그런데 그날, 아침. 야채를 손질 하다 실수로 칼에 손을 베었던 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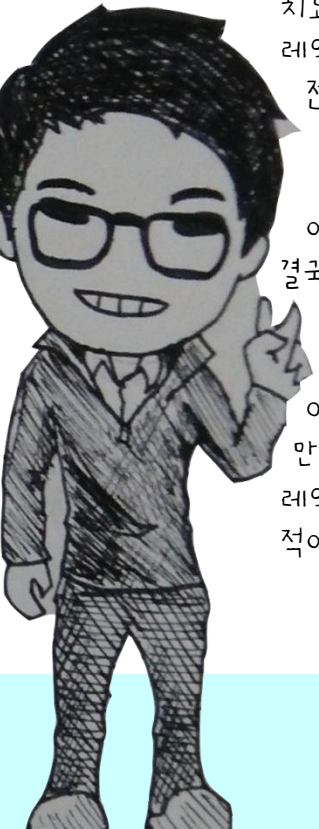
클리닉담당자분의 처치가 시작됐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레악도 많이 놀랐는지, 격양된채 하염없이 울기만했다. 클리닉담당자분께선, 자신은 치료를 할테니 나에게 레악을 뒤에서 안고 진정을 시켜달라 부탁하셨다.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너무나도 아파하며 내뿜에서 울고있는 레악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레악을 뒤에서 조금 더 꼭안아주며 이제 다되었다고,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주는 것이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언뜻보기에도 전혀 괜찮지 않은 상처로 너무나도 아파하는 동생의 모습에, 그 고통에 대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졌다.

지혈이 되지 않았다. 지혈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려 간절한 마음으로 묶었던 붕대를 풀기 시작하면 야속한 피는 어김없이 흘렀다. 이 과정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 번을 반복하였지만 피는 끝내 멈추지 않았다. 결국 레악은 오후 다섯시가 조금 지나서야 시엠립 시내에 위치한 병원へ 가서 상처를 꿰맸고, 그제서야 그날 상처의 고통을 봉합할 수 있었다.

절대 레악만큼은 아니었고, 비교조차 불가하지만, 그날 나도 레악과 함께하며 많이 아팠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로 든 감정은 '화'였다. 이 상황이 여러모로 너무나 화가 났다. 만약 레악이 다치자마자 병원へ 가서 의사에게 레악의 상처를 보이고 마취를 한뒤, 벌어진 상처를 꿰매었다면, 레악이 이렇게 여러번 고통스러워 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레악이 하루종일 이렇게 아파했던걸까? 적어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이런종류의 기회는 모든인간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5. 개인 소감 - 김재민

또한 왜 크맹크맹(꼬맹이)이라고 불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어린 소녀가, 매일칼과 주방세제를 들고 밥퍼 조리과정을 돕는데에 이토록 많은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건지 연이어 생각이들며 또 화가 났다. (이곳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장난이 좀 짓궂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들이다.)

그런데 이 '화'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들이 어느곳을 향하고 있는 '화'인지, 또 어느곳을 향하여 쏟아내야할 '화'인지 알 수없는 참으로 무의미한 화였다. 하지만 적어도 이 '화'로 인해, 국내교육에서 그렇게 배워왔던, 자발적 불편이 어떤 감정에서 시작되어야 할지,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마음으로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감정을 단순히 감정으로 담아둘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행동들(자발적불편이외의 행동들)해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화'라는 감정 이후에 들었던 또 다른 감정은 생전 처음 느껴본 알 수 없는 물음표의 감정이었다. 레악에게 무언가 주고 싶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근데 그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강렬했었고, 지금도 너무나 강렬하다.

내 품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울었던 아이의 모습때문이였을까?

아니면 그 무엇때문이였을까?

이 이상한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생전 처음만나는 알 수 없는 이러한 감정에 대해 무언가 경계 되고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지금 나의 감정은 그러하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하루동안의 이 이야기는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되었다.

내 품에서 너무나도 아파하던 레악의 모습,

그리고 레악의 눈물. 그리고 내가 느꼈던, 느끼고 있는 감정들.

아마 내 평생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아니, 평생 잊지 않을거다.

5. 개인 소감 - 목진경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다. 한달 동안 느낀 것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매일 다른 일상을 지내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 한국에서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거기서도 행복했었겠지만, 항상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요즘의 나는, 시엠립에서 어린 친구들과 만나고 '밥퍼'라는 무료 배식을 돕고 있다. 작년의 나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이다. 작년에는 상상도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고 즐겁고 그래서 행복한 것 같다.

시엠립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도시이다 보니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 것 같았다. 물론 간판에 있는 크메르어나 집의 높이 정도는 다르기도 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모두 다르다. 스텝들과 나누는 이야기, 출퇴근할 때 보는 창 밖 풍경, 매일 반겨주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는 아이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나에게 참 소중하다. 출퇴근할 때 타는 차에서 보는 바깥 풍경을 보면서 행복하고, 저녁 노을이 질 때 새빨갳게 되는 하늘을 보는 것, 하루하루 더 친해지는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행복하다.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기만 하느라 지난 한 달은 고민이나 걱정은 거의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다. 또 내가 여기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 활동도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4개월 지금처럼 행복해하면서, 또 무엇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지 고민도 해보면서 지내보아야겠다.



5. 개인 소감 – 백인준



1. 공개하는 일기

솔직히, 공개적으로 쓰는 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훑쳐봐주는 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 에세이에 좋은 글을 쓰기 힘들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친절하지 못한 것 같다.

2. 공감대

'둘이 사랑해요?'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 현지아이들에게 들은 첫 한국말이다. 국내훈련 간 8기 단원들이 자원 활동을 가서 사랑을 주기보다 더 많이 받고 왔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나는 공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3. 모든 것의 시작은 '인정해버리는 것'으로 부터..

나는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해버린 이상 '덜 이기적이고', '덜 오만하고', '자신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4. 종교와 철학은 한끝 차이라고 해석했다.

모든 종교에 신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사람도 없고, 철학의 궁극적 이상향이 신이 될 수 없다고 정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존중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철학을 존중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나에게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과 다르지 않으니까.

5. 그래서,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든 간에 '나는 우주에서 티끌 같은 존재'고, '티끌 하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희망적이다. 항상 이 두 개의 문장을 마음에 품는 이상 나는 행복하게 살 것 같다.

5. 개인 소감 - 장은지

처음 씨엠립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 그대로 아직 간직하고 있다. 처음 우리를 반겨주었던 한국스텝들, 그들이 건네주었던 꽃에서 나는 향기는 씨엠립의 첫인상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꽃 향기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으로 씨엠립에 발을 디뎠던 설렘과 떨림으로 내 마음은 풍성해진다. 나에게 있어 3월 한 달은 역동적이고 많이 부숩졌던 시간들이었다. 처음으로 낯선 캄보디아 땅에서 5개월이란 기간 동안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사는 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닌 우리팀 4명, 더불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 스텝들과 크마에 스텝들과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것,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등 많은 부분에서 적잖은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그들과 살다보니 슬금슬금 부담감이 밀려온 듯싶다. 마냥 좋았다. 내가 그 동안 살아왔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모험심이 컸고, 다른 생김새에 신기했고, 그들의 모든 것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내 감정과 상황들에 앞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우선 이해하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고 듣고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선 '나'보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내 '마음'이 Keypoint였다.

수도 없이 나 자신과 부딪히고 부단히 싸웠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님 다른 건지. 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지. 꼭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건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내가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 건지. 화를 내면 상대방의 감정은 어떨지. 상대방이 나를 고려하고 있는지. 나 편하자고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만 쌓여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참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참음으로써 나는 상처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끝없는 대화였다. 무엇이든지 결론을 내려고만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만 하는 타인을 보면서도 많이 도전 받기도 했다. 때론 그냥 해답이 나오지 않은 채로 그 문제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을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내가 나 편하자고 누군가를 바꾸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자고 계속 되내이고 되내였다. 또한, 지금 여기 내 바로 옆에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다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으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생명들을 어떻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내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혔다.

정말 감사한 건 처음에 아이들과 관계 맺기에 있어서 언어가 잘 안 통하고 한계가 있어서 쉽사리 친해지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꺾어온 꽃을 내밀어 주고, 예쁜 돌을 가져다 주고, 아끼는 구슬을 주고, 장난감 반지를 주고,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고, 먼저 와서 이름 불러주고, 먼저 터치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어쩌면 나보다도 관계 맺기에 있어서, 사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욱 어른스럽구나'라고 느껴졌다. 여기 오기 전부터 들었던 많은 말 중에 내가 사랑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받는 사랑이 더 크다고 들었다. 그 말처럼 정말 아이들에게 받는 사랑이 더욱 크고 따뜻한 것 같다.

나도 후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100% 쏟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

아무쪼록 한달 동안 보고 느끼고 했던 여러 생각들이 잘 다져져서 앞으로 남은 4개월을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도록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더욱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

